

사도 신경 강해 6 :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나시고.

사도행전 2 : 23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대로 내어준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사도행전 2 : 24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오늘은 사도 신경 강해 여섯 번째 순서로서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나시고. 의 구절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둔 증거와,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현재 믿는 자 안에서 체험되는 증거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죽기만 하시고 다시 살지 못했다면 이런 일들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에 대하여,

1.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 :
2. 부활의 성경적 증거
3. 부활의 교리적 중요성에 대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몸으로 부활하셨지만 우리의 몸과는 다른 신령한 변화된 몸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것을 역사적 사실로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신문에 날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인가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 되기 위해선, 먼저 예수님 자신의 부활에 대한 주장과 증인들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하였다고 주장할지라도 증인이 없으면 안됩니다. 또 아무리 증인들이 증거를 하여도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지 않았다 하면, 증언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중요한 것은 현장의 증거입니다. 아무리 본인과 증인의 증거가 있어도 현장의 증거가 없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정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 자신의 부활에 대한 주장부터 검토해 봐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을 자기의 백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신다고 하셨고, 또 죽은지 삼일만에 부활하실 것을 주장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 : 21 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삼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너무 많으므로, 이것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의 증언을 살펴보면,

사도행전 2 : 32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사도행전 2 : 33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 : 3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고린도전서 15 : 4 장사 지낸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 : 5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 두 제자에게와

고린도전서 15 : 6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 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고린도전서 15 : 7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고린도전서 15 : 8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고 증언했습니다.

다음은 현장 증거인 빈무덤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매장에 대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예비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며, 이 날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장자를 칠 때, 자기 집 문설주에 어린양의 피가 칠해져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치지 않고 건너 갔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유월절(pass-over)이라고 부르며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양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양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 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죄와 마귀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유월절은 안식일이며 지금의 토요일에 해당합니다. 유월절 전날은 예비일이라 하며 금요일입니다. 유대인의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하여 그 다음날 저녁 때 까지 임으로, 유월절 명절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어 토요일 저녁에 끝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이 유월절 예비일인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 시에 못박히시고, 오후 3 시에 절명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체를 부정하게 여기므로, 유월절에 시체를 십자가에 달아 놓고 명절을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동굴로 된 자기의 묘실에 매장하였습니다. 유대인의 매장 풍습은 우리와 달라 동굴에 시체를 들여놓고 큰 돌로 굴의 입구를 막습니다. 예수님이 매장된 무덤을 막은 돌은 장정 10 명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 큰 돌입니다.

다음에 우리는 유대인의 장례 풍습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염을 할 때는 머리를 수건으로, 수족과 몸을 세마포로 싸고, 시체와 세마포 사이에 향료와 ointment 를 넣습니다. 그리고 다리 부분은 싸지 않고 그대로 놉니다. 따라서 상체는 세마포로 둘둘 말아 싸인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매장 되기 전에 이런 유대인의 풍습에 따라 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동굴에 넣고 큰 돌로 무덤입구를 막습니다. 이것이 요한 복음 19:39-40 과 마가 복음 15:46 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먼저 요한 복음 19:39-40 을 보면

요한복음 19 : 39 일찍 예수께 밤에 나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a mixture of myrrh and aloes)을 백 근쯤 가지고 온지라

요한복음 19 : 40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마가 복음 15:46 을 보면

마가복음 15 : 46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 두고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았다고 하였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거둢납에 대해 강의를 듣고 깊은 감화를 받은 공회원이며,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예수님을 믿는 공회원이며 부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요한 복음 11 장의 나사로의 모습을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요한 복음 11 장을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시고, 사람들에게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신 후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요한복음 11 : 41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요한복음 11 : 42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1 : 43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요한복음 11 : 44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모습은, 얼굴이 수건으로 싸였고, 수족이 베로 동인 채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주위에 있던 사람들에게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말했습니다. 몸둥이와 팔을 세마포로 감아 놓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풀어 주어야 세마포를 풀 수 있습니다. 수족을 감은 세마포를 다른 사람이 풀어 주지 않으면 스스로 세마포를 풀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동굴로 된 무덤에 안치 될 때는, 나사로와 똑같은 모습으로 안치되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체를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라 염을 하고, 묘실에 넣고 큰돌로 막았습니다. 또 대제사장은 누가 시체를 훔쳐 가지 못하게 하려고 인봉하고, 여러 명의 병사를 시켜 지키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있었던 날수는, 일자로 치면 금요일 저녁에 무덤에 안치되고, 그 다음날 안식일을 보내고, 안식 후 첫날 새벽인 일요일 아침까지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아리마대 요셉의 묘실에 안치된 채로 삼일을 보냈다는 것이 됩니다.

다음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발견된 빈무덤을 우리는 관찰해야 합니다.

요한 복음 20:1-7 을 보면,

<빈무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무덤으로 달려 갔습니다.

그리고 둘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갔다”고 고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무덤으로 달려 갔습니다.

요한이 베드로보다 젊으므로 앞장서 뛰어 먼저 무덤에 도착했으나 들어 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뒤따라 와서 열린 무덤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20 : 6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 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요한복음 20 : 7 또 머리를 씻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판 곳에 개켜 있더라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는 벗겨져 있었고, 머리를 싼 수건은 다른 쪽에 개켜 있었읍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누가 예수님이 매장 되었던 무덤 안에 들어가 머리에 싼 수건과 수족을 싼 세마포를 풀러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풀어 주질 않으면 도저히 풀 수 없는 세마포를 누가 풀어 주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핀 나사로의 예를 볼 것 같으면, 남이 풀어 주지 않으면 세마포를 스스로 풀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무덤 안에 혼자 계셨는데 어떻게 세마포를 풀고 나오셨습니까?

마태 복음 28:2-4 를 보면,

마태복음 28 : 2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러

내고 그위에 앉았는데

마태복음 28 : 3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 같이 희거늘

마태복음 28 : 4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천사가 돌을 굴러내고, 예수님을 풀어 주었던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스스로 빠져 나온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문을 잠가 놓았는데도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평안 할지어다'하신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빈무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움직일 수 없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신문에 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두 번째 증거는,

제자들이 증거한 증거의 신빙성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대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바는,

예수는 평범한 인간이었다. 다른 선지자들과 다름없는 예언자 중의 하나였다. 그런데 그의 가르침은 전통적 유대교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아, 그 당시의 지배층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미움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난 후 그의 제자들이 죽은 스승이 부활하였다고 주장하며, 신격화(神格化, deification) 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제자들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기 시작한 것은 오순절 때부터입니다. 오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부터 시작하여 50 일이 되는 날입니다.

부활하신 후 50 일이 지나서 베드로가 증거한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때 베드로의 증거를 듣고 3000 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실이 있고, 그 사실이 신격화된 내용으로 변환되어, 그 변환된 내용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면 적어도 100 년의 시간이 지나야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평범한 인간으로 살다가 죽었는데 제자들이 부활한 것으로 꾸며, 후세 사람들이 믿게 하려면 적어도 100 년의 시간이 흘러야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들은 동시대 사람들입니다. 100년 후에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지 50일 뿐이 안되었습니다.

여러분은 50일 전에 분명히 죽는 것을 눈으로 보았는데, 그 사람이 죽지 않고 부활하였다면 그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이 말을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누가 그런 소문을 퍼뜨릴까 겁이나 눈과 귀에 불을 켜고 있을 때입니다.

베드로의 증거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확실히 예수님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50일전에 생긴 사건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면 있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숨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논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며 숙직하던 군병들은, 제사장들에게 가서 자신들이 겪은 사실들을 모두 고했습니다. 마태 복음 28:12-13을 보면

마태복음 28 : 12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마태복음 28 : 13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고 말하라 하였습니다.

이들의 논리가 합리적이지 못한 것은,

첫째 파수하는 병사들이 잠이 얼마나 깊이 들었길래 열 명이 옮겨야 옮길 수 있는 큰 돌이 옮겨지는 것도 몰랐습니까?

둘째 그렇게 깊이 잠잘 때에 흠쳐 간 것이라면, 잠자고 있던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셋째 두려워 떨던 겁쟁이 제자들이 무장하고 지키는 병사들 몰래 어떻게 시체를 흠쳐 갔습니까?

따라서 반대 증인의 증거는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이런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 분명합니다. 아담의 타락이 인류를 멸망과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릴 대사건 이었음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 타락한 인류의 운명을 축복과 생명으로 바꾸어 놓는 대사건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부활의 현재적 증거>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큰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증거하시지 않았다면 부활이 아무리 역사적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토록 큰 능력으로 세상에 전파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적을 더듬어 보면 그것을 쉽게 알게 됩니다. 사도들은 모두 하나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때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라(사도행전 2:32)”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니,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삼천명이 회개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에 대해,

사도행전 2 : 33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입니다.

오늘 날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인 성령께서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현재적 증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현재의 사람들에게 체험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이 증거한 예수님의 부활을,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초자연적으로 증거해 주시는 것이 기적(표적)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앓은뱅이에게 베드로가,

사도행전 3 : 6 --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사도행전 3 : 7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사도행전 3 : 8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걸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고 죽은 상태로 있다면, 죽은 예수의 이름이 무슨 역사를 일으킵니까? 죽은 조상의 이름을 부르면서 앓은뱅이 앞에서 춤을 추어 보십시오! 앓은뱅이가 일어나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앓은뱅이를 일으키니 앓은뱅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살아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키니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앓은뱅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날도 예수님의 이름의 증거되는 곳에서 앓은뱅이가 걸으며, 절뚝발이가 뛰며, 병어리가 노래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 시대 이후 2000 년 기독교 역사동안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시고, 따르는 여러 가지 표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역사적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적으로 개인적으로 체험되는 것이 독특합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그 모진 핍박 속에서도 현재까지 견딜 수 있었던 원동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그 후 그의 인생은 변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체험된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간 후 2000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체험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마가복음 16 : 15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 : 16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 : 17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마가복음 16 : 18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찌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2. 부활에 대한 구약 성경의 증거

부활의 믿음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창세기 22 장의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했던 기록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묶어 단 위에 올려 놓고 제물로 드리려고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이 때 공중에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2 : 12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한 수양이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100 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인간으로 견디기 어려운 시험을 어떻게 순종으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1 : 17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히브리서 11 : 18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히브리서 11 : 19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물로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시리라는 부활의 확신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또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인 옴은 말하길,

옴기 19 : 25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옴기 19 : 26 나의 이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것 뿐만 아니라 부활을 지시하는 구절들이 구약 안에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 12 : 2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3. 부활의 사실의 교리적 중요성

3.1 속죄 사역의 완성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고 부활하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 : 14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고린도전서 15 : 16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고린도전서 15 : 17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고린도전서 15 : 18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고린도전서 15 : 19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3.2 사망이 철폐됨

물질계 안에서 가장 강한 자는 사망입니다.

생노병사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 물질계입니다. 죽지 않는 것은 물질계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지으신 에덴 동산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사망은 죄의 결과로 온 것입니다. 아담의 원죄를 타고난 인간은 아무도 이 사망의 결박을 풀고 나올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서는,

로마서 1 : 4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께서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담대히 사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폐지되었다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 : 10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 내신지라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 내신지라 한 이 구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부활은 두단계를 거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성령 안에서 영생을 받아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 일어나는 것이요, 둘째 부활은 이렇게 중생한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때 몸의 부활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 때 있을 몸의 부활의 보증으로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 영원히 사망으로 갑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판의 부활이 바로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부활입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 즉 불신자는 부활로 나오지만 그것은 생명으로 가는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으로 가는 부활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영원히 예수님과 신천신지에서 살게 됩니다. 이 몸의 부활로 나오는 때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이제부터는 육신의 몸을 벗는 첫째 사망을 두려워 해서는 안됩니다.

육신의 몸을 벗는 첫째 사망은 다른 차원의 삶으로 들어 가는 과정임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고 깨어나면 새로운 아침이 오듯, 육신의 몸을 벗으면 새로운 차원의 삶이

우리에게 열릴 것입니다.

진짜 사망은 둘째 사망입니다.

지난 세기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Moody 선생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문이나 라디오, TV 에서 Moody 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마시오.

나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확신을 가진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 글이나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5 분만 시간을 내셔서 저의 twitter 나 café 에나, Blog 에 가셔서 소개의 글을 올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읽고 듣게 됩니다.

- Café 명 : 믿음의 향연

<http://cafe.naver.com/Christiansymposium.cafe> 이나

- Blog 명 : 행복의 샘터

<http://blog.daum.net/shk2812> 이나

- * twitter

1. <http://www.twtkr.com> 으로 가셔서 로그인을 하세요.
2. 바울성서 아카데미(spba0708)에 접속하여 Follower 등록을 하세요
(twitter 안에서검색 box 에 spba0708 을 넣으신후 click 하면 접속됨).
3. 내 twitter 의 home 으로 가서 글을 쓰신 후 tweet 하세요.
4. 제가 twitter 에 올린 글(예, example)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씀으로 지배한다는 뜻이고, 우리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으면,
<http://www.stpaulbibleacademy.com/3FCFContents.html>

여섯째주를 공부하시길!

5. Retweet 를 하실 분은 (꼭 부탁드립니다만), 여러분의 home 로 가셔서, 글을 쓰는 Box 에 RT @ 를 type 하신 후 , space 한 후, Retweet 할 내용을 paste 하시면 됨.